

#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 금리 하락과 종전 합의 기대..미국증시 최고가 랠리

- 미국 증시 최고가 랠리: 나스닥, S&P500 최고치 경신
- 미국-이란 협상 진전 가능성에 기대
- 예상 하회한 성장물가 지표..장기 금리 하락

### Summary

#### 미국증시 최고가 랠리

5월 28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0.05% 상승한 50,668.97에 거래를 마쳤고, S&P500 지수는 0.58% 상승한 7,563.63에 마감함. 나스닥 지수는 0.91% 상승한 26,917.47에 거래를 마칩. 이날 상승으로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소형주 중심 러셀2000 지수도 0.57% 상승 마감. 러셀2000도 최고가를 재차 경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 는 이어지는 하락으로 레벨을 낮춤. 3.38% 하락한 15.74에 마감.

최근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종전 협상의 추이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엇갈린 신호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은 이란과 미국 양측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주목하는 모습. 시장 예상을 하회한 성장, 물가 지표에 장기 금리가 레벨을 낮춘 것도 시장 상승 요인.

(다우 +0.05%, 나스닥 +0.91%, S&P500 +0.58%, 러셀2000 +0.57%)

#### 미국-이란 협상 기대 지속

미국의 정치 전문 온라인 매체 약시오스는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종전 협상 관련 양해각서(MOU)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 매체는 양국이 지난 26일을 기준으로 대부분의 협상 조건에 합의했다고 2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 구체적으로는 휴전을 60일간 연장하는데 합의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행은 아무 제한 없이 이뤄진다는 점이 명시될 것이며 미국은 이란 항구나 연안을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해상 봉쇄를 MOU 체결 뒤 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함. 또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이 포함돼, 휴전 연장 기간인 60일 동안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안 등이 가장 먼저 논의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에 상응해 미국은 제재 완화와 이란 동결자산 해제를 논의할 것을 약속할 것이라는 점이 MOU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함. 약시오스는 이 같은 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시 승인하지 않았다며 며칠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보도.

다만 이란의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MOU 문안이 최종 확정돼 양측의 공식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서방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아직 타결되지 않았다고 이란 협상팀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미국은 '나쁜 합의'를 맺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란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함. 또 미국의 양보 불가능한 ‘레드라인’으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양도와 핵무기 추구 금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다시 확인함.

다만 이같이 엇갈린 이야기들에도 시장은 양측이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최고가 랠리를 지속함.

한편 마감 이후 이란 국영 통신 파르스는 이란군이 현지 시각 목요일 늦은 밤 미확인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등 국지적 무력 충돌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

**성장물가 지표 다소 둔화**

이날은 미국의 4월 PCE와 1분기 GDP가 각각 발표됨.

1분기 GDP 수정치는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1.6% 증가. 속보치이자 시장 전망치 2.0%를 0.4%p 하회. 소비자 지출과 총 민간 고정 투자의 합계인 ‘실질 민간 국내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가 속보치보다 떨어진 영향으로 읽힘. 1분기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PCE)은 1.4% 증가해 속보치 대비 0.2%p 빠졌으며 분기 PCE 가격지수는 4.5% 상승해 속보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발표. 상무부는 4월 PCE 가격지수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8% 상승했다고 발표. 이는 2023년 5월 이후 2년 11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률. 전품목 PCE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4% 상승해 3월 상승률 0.7% 대비 둔화했으며 시장 예상치 0.5%도 하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가격지수는 4월 기준 전달 대비 0.2% 상승해 3월 기록했던 전달 대비 상승률 0.3%보다 0.1%p 상승률을 낮춤. 고유가에 전반적 물가 수준의 고공행진은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움직임으로 시장은 성장률 하향과 인플레이 속도 조절을 금리 하락 요인으로 반영, 이날 최장기물인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5%를 하회.

**특징종목**

**AI: 차익매물 vs. 성장성**

낸드 플래시 및 스토리지 솔루션의 글로벌 리더 샌디스크(+3.25%)는 전일 회사 최고기술 책임자(CTO) 의 인터뷰를 통해 초거대 AI모델의 고도화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알고리즘의 확산으로 메모리 요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전세계적인 메모리 공급 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일크바하르 CTO는 GPU나 CPU 같은 원시 생산 능력에만 의존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점점 더 비대해지는 AI 작업 부하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업계 베테랑으로 일하면서 고객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메모리 공급 물량을 확정지으려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함. 그는 시장과 주요 빅테크 고객들의 행동에서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 실제 샌디스크는 최근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과 최대 5년간 최소 420억 달러 이상 규모에 달하는 대형 장기 구매 계약을 무려 5건이

나 이어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미즈호는 샌디스크에 대해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과 함께 목표가 기존 1625달러에서 1825달러로 상향했고 바클레이즈 역시 비중 확대 유지하는 한편 목표가 2300달러로 상향. 시게이트 테크놀로지(+1.16%)도 동반 상승.

UBS의 목표주가 대폭 상향으로 급등하던 마이크로 테크놀로지(-0.53%)가 한 숨 돌렸고 인텔(-0.72%)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0.47%), 온 세미컨덕터(-0.90%)와 램 리서치(-0.29%) 등이 차익 매물에 소폭 하락했지만 시발 업종 전반의 폭발적 성장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해 하락은 제한적인 반면 상승은 탄력적인 모습. 퀄컴(+4.24%), AMD(+4.55%), 브로드컴(+1.12%),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8.14%) 등의 오름폭이 컸음.

한편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서버 제조사 델 테크놀로지스(+3.84%)는 2018년 공개 시장으로의 복귀 이후 가장 강력한 매출 성장을 보고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15% 이상 급등.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은 매출단에서 전년 대비 88%의 성장세를 보여 시장 기대를 상회했으며 회사는 AI 시장 확대 구간 안에서 컴퓨터 서버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설명. AI 서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7% 폭증했으며 회사는 올해 연간 AI 관련 매출 전망을 기존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상향함.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AI 모멘텀을 반영하며 강세. 마이크로소프트(+3.47%)는, 다음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빌드'에서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IT전문매체 디 인포메이션이 보도. 공개될 모델에는 깃허브 코파일럿 사용을 제고를 위한 코딩 전용 모델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짐.

전날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스노우플레이크(+36.48%)는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에 아마존 웹 서비스와의 60억 달러 규모 계약 소식 등을 전하며 전일 시간외 거래에 이어 정규 장에서도 급등. 36% 급등해 상장 이후 일간 상승률로 최고를 기록. 데이터도그(+1.55%)와 서비스나우(+6.47%) 등이 동반 강세.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사이버 보안주 옥타(+5.83%)는 에이전틱 AI 기술 확산과 함께 신원 보안 도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전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상회. 토드 맥키넨 CEO는 아직 AI 관련 매출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함. 그는 현재 고객들이 AI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방안을 평가하고 계획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시간외 거래에서 5% 내외 상승.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는 오토데스크(+1.67%)와 몽고DB(+10.60%) 등도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 오토데스크는 전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핵심 지표가 기대를 하회해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 몽고DB는 연간 매출과 이익 전망을 상향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

사이버 보안 기업 센티넬원(+0.39%)은 장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된 가운데 다만 현재 진행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기대를 하회한 영향으로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 한편 앞서 센티넬원이 수백 명의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기도 했음.

### 소매 유통주

소매유통주 내에서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임. 할인 소매업체 달러 트리(+17.87%)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으며 연간 실적 전망치도 시장 기대를 웃도는 수준으로 제시한 가운데 급등. 달러트리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주문형 배달을 제공하기 위해 도어대시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한 점도 호재로 작용. 달러 제너럴(+5.34%)도 동반 상승.

미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15.80%)도 스마트폰과 게임 콘솔의 꾸준한 수요와 광고 및 마켓 플레이스 채널의 성장에 힘입어 전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가운데 급등.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전망도 시장 기대 이상으로 제시.

콜스(+20.57%)도 전분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다는 소식에 급등.

다만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발표한 코스트코 홀세일(-0.85%)은 시장 기대보다 좋은 실적에도 시간외 거래에서 소폭 약세.

한편 의류 업체 겍(+3.95%)과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2.05%)은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

### 테마 중소형주 강세: 양자, 우주, 드론

지난주 정부 지원 이슈에 급등세를 보였던 양자 컴퓨팅 관련주, 내달 스페이스X 상장을 모멘텀 삼아 움직이는 우주 항공주, 그리고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급등한 드론 관련주 등 중 소형 테마주의 강세도 특징적.

IBM(+3.53%)은 향후 5년간 양자 컴퓨터 분야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오류 없이 복잡한 연산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초의 대규모 양자 컴퓨터를 2029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IBM은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양자 컴퓨터 기업 9곳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지분 투자를 결정한 가운데 그 중 절반인 10억 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이외 아이온큐(+7.25%), 디 웨이브 퀀텀(+7.31%), 리게티 컴퓨팅(+9.79%), 퀀텀 컴퓨팅(+7.18%), 인플렉션(+14.94%), 야킷 퀀텀(+5.03%) 등 여타 테마주도 동반 강세.

내달 스페이스X 상장을 앞둔 기대감 속에 우주 항공 관련주 강세는 이어짐. 전 거래일까지 3일 연속 크게 올랐던 로켓 랩(-1.46%)은 이날 소폭 하락했지만 인튜이티브 머신스(+13.29%), AST 스페이스모바일(+2.69%), 플래닛 랩스(+1.82%), 블랙스카이 테크놀로지(+1.24%) 등은 상승세를 유지함.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드론 업체들과 자금 지원 협약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드론 관련주도 강세. 최근 무인 시스템에 대한 국방 지출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대규모로 배치 가능한 저비용, 장거리 자율 드론의 대규모 조달을 추진 중. 군 조달 프로그램에 직접 노출돼 있는 드론 제조사 레드 캣 홀딩스(+32.61%), 방위용 소형 무인항공기 시스템에 집중하는 에어로바이런먼트(+18.26%), 전술 드론과 무인 전투 차량을 개발

하는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큐리티 솔루션스(+13.77%) 등이 강세. 이외 노스롭 그루먼(+1.44%), 록히드 마틴(+1.14%),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8.17%), 보잉(+2.00%), 머큐리 시스템스(+11.33%) 등이 방위비 확대와 방산 자동화 관련 모멘텀을 함께 반영.

**이외 특징주**

CVS헬스(+0.98%)가 일라이릴리(+4.05%)의 체중 감량 주사제 켈바운드에 대한 보험 적용을 복원하고 새로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도 표준 의약품 보험 적용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조치는 CVS가 노보노디스크(+2.15%)와 계약을 맺고 자사 표준 보험 플랜에서 노보의 위고비를 우선 비만 치료제로 지정하는 한편 릴리의 켈바운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중단한지 1년 만에 나온 것.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 국채 금리 전 구간에서 하락**

미 국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국지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하던 금리는 다소 완화된 물가 지표와 악화된 성장 지표가 발표되자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으며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확대함. 다만 이란 측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반박성 보도를 내자 낙폭을 추가 확대하지는 못함. 오후 재무부가 실시한 7년물 국채 입찰은 간접 낙찰률이 전달에 비해 20%p 급등하는 등 양호한 결과를 보여 금리 하락에 힘을 보탬.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0.80bp 하락한 4.025%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2.50bp 하락한 4.455%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2.60bp 하락해 5%선을 하회, 4.984%를 기록.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52%대로 전장 대비 소폭 높여 반영.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37% 수준,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은 10%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로로 집계.

**달러 가치 하락**

미국 달러화 가치는 이란과 미국의 종전 합의안이 진전을 보고 있다는 기대감 속에 약세 입력을 받아. 1분기 성장 지표가 기존 추정 대비 둔화했고 인플레이 상승률이 시장 예상 대비 둔화한 것도 달러 약세 요인.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99.018을 기록해 0.187% 하락. 유로-달러 환율은 0.164% 상승했고, 파운드-달러 환율도 0.068% 상승해 유로와 파운드 대비 달러 약세를 반영했음.

야간 거래에서 달러-원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02.80원 대비 8.80원 하락한 1,494.00

원에 마감.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10원)를 고려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6.30원 하락한 1,495.40원을 기록.

### 국제유가 혼조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잠정 합의에 대한 보도가 나온 이후 낙폭을 확대 하기도 했지만 이란 쪽에서 이에 대한 반박성 보도가 나온 가운데 최종 타결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인식 속에 WTI를 기준으로 소폭 반등 마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25% 상승한 배럴당 88.90달러에 마감. 사흘만의 반등. 브렌트유 7월물은 0.62% 하락한 배럴당 93.71달러에 마감해 이틀째 내림세.

한편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미국의 원유 재고가 직전주 대비 332만 7천 배럴 감소해 5주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밝힘. 휘발유 재고는 257만 2천 배럴 감소해 이보다 더 긴 기간, 15주 연속 감소했음.

국제 금값과 은값은 종전 합의 관련 뉴스 플로우에 집중하며 장 중 1% 내외 상승 구간에서 등락함.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